27수능 대비

1일 1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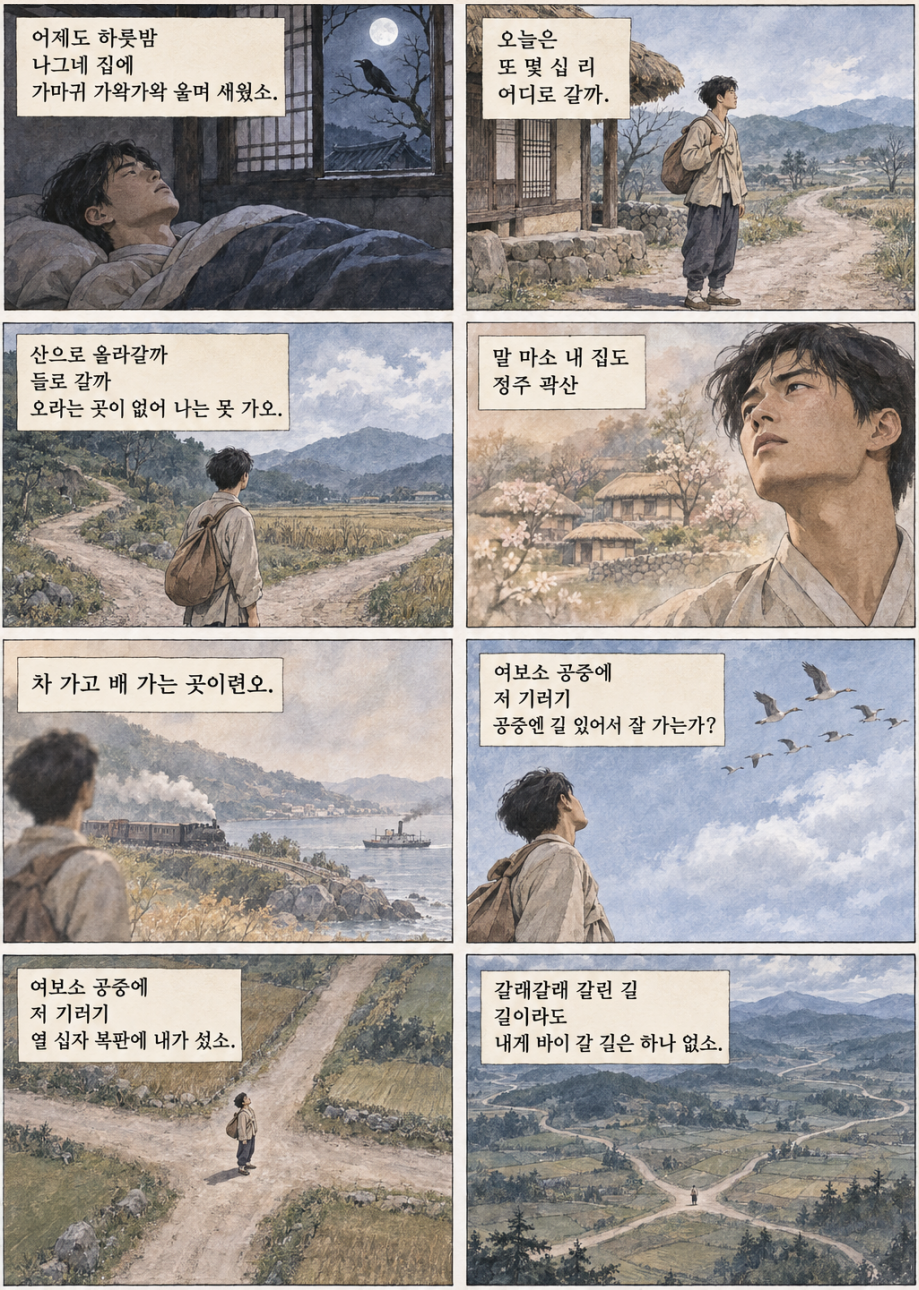
EBS튼

-현대시 편-



길

김소월


어제도 하룻밤
나그네 집에
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웠소.
오늘은
또 몇 십 리
어디로 갈까.
산으로 올라갈까
들로 갈까
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.
말 마소 내 집도
정주 곽산
차 가고 배 가는 곳이련오.
여보소 공중에
저 기러기
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?
여보소 공중에
저 기러기
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소.
갈래갈래 갈린 길
길이라도
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.

길

김소월

어제도 하룻밤
나그네 집에
가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웠소.

오늘은
또 몇 십 리
어딕로 갈까.

산으로 올라갈까
들로 갈까
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.

말 마소 내 집도
정주(定州) 곽산(郭山)
차(車) 가고 배 가는 곳이련오.

여보소 공중에
저 기러기
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?

여보소 공중에
저 기러기
열 십자(十字) 복판에 내가 섰소.

갈래갈래 갈린 길
길이라도
내게 바이* 갈 길은 하나 없소.



* 바이: 전혀.

하나씩의 별

이용악


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
우리 제각기 드러누워
고향으로 돌아간다는
남도 사람들과
나눠서 요기하며
내사 서울이 그리워
고향과는 딴 방향으로
흔들려 간다
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
흐린 창으로
나라에 기쁜 일 많아
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
한결같이 쳐다보는
하나씩의 별